경기도 행정에 비난

한정→시외→한정?… 공항버스 면허행정 '之'

'시외' 전환 후 시민 불편 없고
버스요금은 되레 4800원 내려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등 겉돌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불과 한 달 만에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를 취소하고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시외버스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버스 운행에 문제가 발생,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한정면허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도록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시외버스 면허와 달리 버스업체가 적정요금을 직접 정해 승인을 받는 대신 일정 기한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임 남경필 경기지사 재임 때인 지난 6월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자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버스업체에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방선거 전부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비판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자 경기도는 곧바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항버스 운영업체의 시외버스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정면허 환원 때 현재의 공항버스 운영업체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 자명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면허 전환 뒤 시민의 공항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도 경기도의 고민 사항 중 하나다.

오히려 지난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뒤 공항버스 이용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따른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한정면허 환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 수원권 공항버스 운영업체가 수원지법에 한정면허 갱신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 노선 면허를 3개 버스회사에 발급했다.

수원권을 제외한 3개 권역은 기존의 2개 공항버스 회사가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경기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우드랜드 편백숲.

전남 장흥, '사색의 숲' 테마공간 재조성

장흥군이 편백숲 우드랜드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색의 숲'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2016년 풍욕장(비비에코토피아)에서 명칭을 변경한 사색의 숲은 현재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군은 1.2ha 규모의 사색의 숲은 앞으로 치유, 휴식, 청정을 테마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하늘데크 진입로 주변은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통천문, 하늘문과 같은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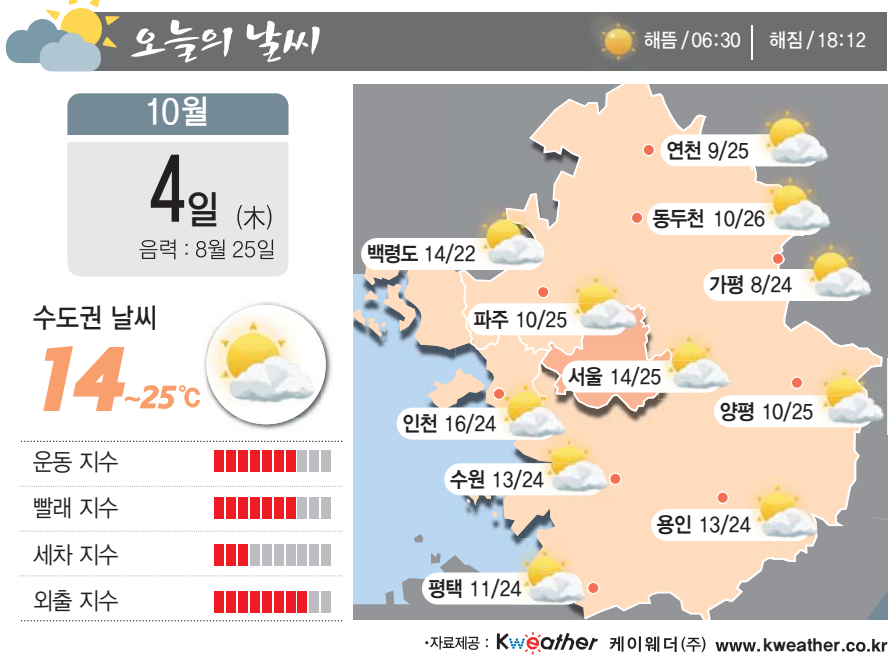
숲 가운데에는 '시와 동행하는 테마길', '사색의 길' 등 치유의 공간을 확대한다. 특히, 제1, 2체험장을 데크길로 이어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고 황톳길, 흙길, 야자매트길을 조성하며 새로 조성한 산책로는 평화의 길, 맨발산책로로 만들어 기존 시설물과 차별화를 둔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평택대, 12일 다문화포럼 개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 아동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12일 오후 2시에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지역사회 다문화전문가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홍영균 이사장(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운영되며, 평택다문화대안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평택·안성 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어 ▲홍규호 외래교수(평택대학교), ▲유은선 원장(초록별 어린이집), ▲송원일 실장(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 연사로 나선다. /경기 평택=이보헌 기자 bhlee7777@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능동적 복지' 시동

광주시, 일자리·돌봄·여가 지원 등
민선7기 '노인복지정책' 비전 제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기존의 수동적 돌봄에 머물렀던 노인복지를 일자리 제공 등 '능동적 복지'로 전환한다. 더불어 일자리와 돌봄, 여가 지원 등 3각 축을 토대로 촘촘한 복지정책을 세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노인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비전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것으로 '수동적 돌봄'에서 '능동적 복지'로의 정책프레임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동적 복지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형, 공익형, 인력파견형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1만5000여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임기 내에 연 3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곧 고령층에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빛고을 50+ 일자리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형, 시장형 일자리를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조기 퇴직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취업포털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마련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민간요양시설을 활용한 단기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담·교육, 정서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단가도 3000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각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시설도 확충한다.

우선 마을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11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사업비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노후 경로당의 지속적인 시설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오중일 기자 raser506@

"토요일도 문 열어요"

전남 장성군, 농번기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

장성군이 바빠지는 농사철에 맞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확대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평일 저녁 8시 반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이 늘어나는 시즌에 맞춰 농기계 임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연장근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는 평소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장성읍에 있는 본소에서만 토요일 운영을 해왔지만, 11월까지 나머지 두 곳도 토요일 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확대운영 조치로 지난달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농업인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2017 왕버들 기원제 및 음악회.

광주 북구, 6일 왕버들 기원제·음악회 열어

광주시 북구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숨겨진 옛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계승에 나서고 있다.

북구는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충효동 왕버들,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왕버들 기원제 및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충효동 왕버들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고 충효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7회 왕버들 기원제'를 연다.

기원제는 왕버들의 무병장수와 영생을 염원하는 기원제례와 함께 충효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소원빌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무등예문회의 농악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2018 왕버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트로트, 색소폰 연주, 판소리, 한국무용, 진도 북놀이, 퓨전난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